

청년기 진로발달 변화형태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원 성장 혼합 모형(Two-part Growth Mixture Model)의 적용(이수용·이은수·홍세희) 137

雇傭職業能力開發研究
第19卷(3), 2016, 12, pp. 137~162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청년기 진로발달 변화형태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원 성장 혼합 모형(Two-part Growth Mixture Model)의 적용

이수용* · 이은수** · 홍세희***

청년기에 가장 핵심적인 고민 주제는 ‘진로’이다. 이 시기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진로를 향해 나아간다. 또한 진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전생애에 걸쳐 변화하는 것으로, 진로발달과 성취가 과업으로 주어지는 청년층에 대한 전반적인 진로 발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진로발달 추이와 변화 형태를 유형화하고, 이들 형태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정규직 여부, 임금, 직장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했다. 진로 발달을 구성하는 진로 결정과 진로탐색 수준을 동시에 유형화하기 위해 이원 성장혼합모형(Two-part Growth Mixture)을 실시했으며, 각 유형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Lanza 방식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 진로 결정이 청년기 전반에 걸쳐 미결정 수준에 해당하는 미결정 집단을 포함하여 5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또한 각 유형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는 진로발달이 높은 집단이 전반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과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 주제어 : 진로 발달, 노동시장 성과, 잠재집단, 이원 성장 혼합 모형

투고일: 2016년 06월 12일, 심사일: 08월 11일, 게재확정일: 2016년 09월 26일

* 제1저자, 고려대학교 석사과정(pagass103@naver.com)

** 제2저자, 고려대학교 석사과정(eunsoo9090@gmail.com)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seheehong@korea.ac.kr)

I. 서론

사회로 첫 진입을 앞둔 청년들에게 진로의식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자아에 대한 탐구를 통해 좁게는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넓게는 삶에 대한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진로의식이 확고한 20대 청년들의 경우 직업 선택 과정에서 본인의 내적인 욕구와 사회적 조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개인적으로 올바른 선택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재의 적절한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청년들은 진로의식을 확립하기보다 학력과 일명 ‘스펙’(Specification의 준말)이라 불리는,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각종 어학시험 점수, 자격증 획득에 많은 투자를 한다. 한국 20대 청년들은 자신이 업으로 삼을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기보다, 학력을 포함하는 ‘스펙’을 쌓는데 집중한다. 하지만 이 스펙들은 청년들이 꿈꾸어 왔던 진로와 관련 없는 경우가 많으며,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채창균·권태기, 2012; 노경란·박용호·허선주, 2011; 박동열·김대영, 2006). 뿐만 아니라 진로의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스펙’을 앞세워 취업을 하다 보니,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한 특수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직업에 대한 확신 또한 부족하게 된다.

최근 정부에서도 진로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6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지원 방안들로 구성된 진로교육법을 공포하였다. 이전까지는 중·고등학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진로교육법에는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직업에 대한 고민과 결정이 어느 한 시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Super, 1990; 김봉환·김계현, 1997). 특히 청년기라 할 수 있는 20대는 전생애 진로발달 과정에서 진로결정을 구체화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이기에 20대의 진로발달은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에 대해 뚜렷한 목표를 갖고 실제적인 준비행동이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구직자들의 성과가 높았음을 보여준다(박소영·민병철, 2008;

곽수란·이기중, 2014; 김성남, 2013).

이 같은 진로발달은 크게 진로 결정성과 진로탐색 수준으로 구성된다. 진로 결정성은 특정 시점에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단계로 사회로의 첫 발을 내딛는 20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사결정이다(황여정, 2007). 하지만 특정 시점에서 결정한 진로 결정은 그 시점에 고정된다기보다 더 강화되거나, 약해지는 등의 변화를 겪게 된다. 진로발달의 또 하나의 축인 진로탐색 수준은 진로 결정성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주는 요소이다(김충기, 1996). 진로 결정성이 생애단계에 따라 변하듯, 진로탐색 수준 또한 변화·발달을 하는 개념이다(김봉환·김계현, 1997). 진로를 적절히 결정하고, 그에 대한 탐색 수준이 높은 청년들은 해당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성숙한 직업관을 갖고 노동 시장으로 성공적인 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청년층 진로발달의 중요성 때문에 진로발달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는 진로를 결정하는 특정 한 시점에서의 진로 선택이 취업 여부, 연봉, 직장 만족과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구직자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소영·민병철, 2008; 곽수란·이기중, 2014; 김성남, 2013). 즉, 기존의 청년기 진로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20대 전반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발전, 변화하는 측면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같은 진로발달 변화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 전반에 걸친 진로발달 변화가 어떠한지 파악한 후에 그 특성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의 진로발달에 관심을 가진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진로발달이 직업을 갖고 정착하는 단계인 20대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 형태로 나타나고, 이들 형태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차이가 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진로발달 수준이 20대 전반에 걸쳐 높은 청년들은 노동시장 결과물에 있어 다른 집단, 특히 진로결정 상태가 미결정으로 남아있는 집단보다 높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대 청년들의 진로발달을 진로 결정성과 진로탐색 수준으로 나누어, 이를 중심으로 진로발달의 변화추이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청년기는 진로 결정을 구체화하고 직업을 결정하는 시기로 다양한 진로발달 형태를 보일 수 있다. 예로써, 높은 진로발달을 꾸준히 유지하는 청년층이 있는 반면, 진로발달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청년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청년기 전반에 걸쳐 진로발달

수준이 높은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20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청년기의 진로결정 여부에 대한 변화 형태가 어떠한가?
 둘째, 청년기 진로 결정성 변화 형태에 따른 진로탐색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청년기 진로발달 변화 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진로발달의 개념 및 중요성

진로발달이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발달과정이자 자신과 사회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역할을 탐색, 계획, 결정, 수정을 반복하면서 진로에 관한 의식과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다(Super, 1957; Usinger & Smith, 2010; 이자형, 2015). Ginzberg, Ginzberg, Axelrad, & Herma (1951)는 진로에 대한 고정적이고 일회적인 관점을 비판하면서 진로에 대한 발달적 관점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환상기(초등학교 시기), 잠정기(청소년기, 중학교 시기), 현실기(청년기, 고등학교 이후 시기)로 구분하였다(곽수란·이기중, 2014에서 재인용). 진로발달 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현실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잠정적으로 결정했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진로결정을 구체화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또한 Super(1990)는 진로발달을 전생애적 발달과정으로 보고,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성장과 쇠퇴의 변화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진로발달의 다섯 가지 단계를 제시하며 성장기(growth stage), 탐색기(exploration stage), 확립기(establishment stage), 유지기(maintenance stage), 은퇴기(decline stage)로 구분하였다. Super는 20대 전반에 해당하는 탐색기와 확립기의 진로발달을 중요시했는데, 이는 이 시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세계에 대해 구체적인 선택을 하고 그 직업

에서 안정과 발전을 이루면서 자아개념을 완성해 가는 시기로 보았기 때문이다.

진로발달은 진로결정수준, 진로탐색, 진로준비행동, 진로효능감 등과 같은 요인들을 포괄하고 있다(김성남, 2013; 노법래, 2013; 황매향·김봉환·최인재·허은영, 2010; 황여정, 2007). 그 중에서도 진로결정과 진로탐색 수준은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Osipow, Carney, & Barak, 1976). 진로결정수준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진로결정 상태를 '진로결정'과 '진로 미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진로결정은 자신의 전공 및 직업의 선택과 관련된 확신의 정도가 높은 상태이며, 진로 미결정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정윤경, 2000).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원하는 진로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방향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진로정보를 탐색하게 된다(Lee, Locke, & Latham, 1989). 진로정보는 일과 관련된 교육적·직업적·심리사회적인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직업세계에 관한 통찰과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김충기·김현옥, 1993).

진로발달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진로결정이나 인식 등의 성숙은 어느 한 시점에 결정되기보다 개인의 생애단계에 따라 발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진로발달 연구는 한 시점에서 진로결정 여부를 구분하여 이로 인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김봉환·김계현, 1997; 장경문, 2005; 임은미·박승민·엄영숙, 2009). 이에 반해 권재기·김진호(2011) 연구는 진로발달을 종단적으로 확장하여 연구했다. 하지만 진로발달을 20대 초반으로 국한한 점과, 순수한 진로 미결정 상태인 집단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초반을 넘어 청년기 전반에 걸친 진로결정 및 진로탐색 수준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2. 진로발달과 노동시장 성과

진로결정은 현재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설정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졸업 후에 자신이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분야의 선택을 의미한다(김봉환·김계현, 1997).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기의 학업성취, 학교적응과 관련해서, 그리고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는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이자형, 2015; 장경문, 2005; 박수길·이영희, 2002). 반면, 대학생의 진로발달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는 취업 시 임금이나, 직장에 대

한 만족도 등으로 표현되는 구직 성과 혹은 노동시장 성과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진로발달 수준과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관계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학교와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각각 진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직업세계 이후의 삶을 아우르는 종단적 데이터가 부족하기도 했기 때문이다(박소영·민병철, 2008).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교육고용패널이나 고용패널과 같은 자료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과 같은 진로발달 특성이 취업여부, 임금, 직무만족도 등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수란·이기중, 2014; 김성남, 2013; 노경란 외, 2011; 박재민·엄미정·김윤영, 2010). 먼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자료를 사용하여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박소영·민병철(2008)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시기에 따른 노동시장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성과로는 임금과 직업만족도를 지표로 설정하고, 진로결정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시기가 빠른 집단에서의 임금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체적인 진로결정수준의 시기를 당기고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그 다음으로 특성화고졸 취업자의 진로발달을 이차원적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진로발달 유형과 직장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김성남(2013)의 연구가 존재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로에 대해 뚜렷한 목표를 갖고 실제적인 준비행동이 높은 유형의 학생들이 가장 직장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교 재학 시 취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것이 졸업 후 취업한 직장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고등학교 3학년 패널 1~9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곽수란 외(2014)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특성과 직업만족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로발달 특성인 고교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요인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 시절 진로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미성숙한 진로발달을 보이게 된다. 대학생의 직업의식 실태를 조사한 연구(박동열·김대영, 2006)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학생은 진로 문제를 가장 고민되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응답자의 82.4%가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진로정보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재기·김진호, 2011에서 재인용). 이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대학졸업 이후에도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이직을 반복하거나 실업 상태를 지속하는 등 방황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부족한 정보와 확신, 그리고 내적 동기가 결여된 상태로 진

로를 결정하게 되면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 일자리를 가지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부적응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신희경·김우영, 2005).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발달 변화와 변화유형이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2-11차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KEEP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에 시작되어, 이후 동일한 표본을 1년 주기로 추적 조사한 패널이다. 분석대상은 2005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2,456명으로 최종 표본을 구성하였다. 각 시점의 결측률의 경우 3, 4차 자료에서 50%에 가까운 결측률을 보이는데, 이는 남학생이 주로 군입대 하는 시점과 겹쳐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평균적인 결측률은 35%이다. 본 연구에서 결측치리는 완전 정보 최대 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활용하며, Newman(2003)의 연구에 따르면 FIML은 결측률 50% 이상의 종단 자료인 경우에도 결측치 처리가 우수하다고 보고되었다. 전반적인 결측률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2. 측정도구

가. 진로발달 특성

‘진로결정 여부’의 경우, 미래의 직업을 결정했다고 응답하면 1,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하면 0으로 코딩하였다. 분석에는 대학교에 입학한 2차 연도부터 11차 연도까지의 시점을 모두 사용하였다.

‘진로탐색 수준’은 미래직업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문항 2개(업무

내용, 전망 및 보수)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1-전혀 모른다', '2-잘 모른다', '3-약간 안다', '4-잘 안다', '5-매우 잘 안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결정 여부에서 '예'라고 답한 경우만 본 문항에 응답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진로탐색 수준 해당 값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0'으로 처리되었다. 두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 낸 점수를 활용하였고, 마찬가지로 2차 연도부터 11차 연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총 10년간의 진로결정 여부와 진로탐색 수준에 대한 비율과 평균은 아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나. 노동시장 성과

구직 시점에서 구직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나타내주는 결과변인으로는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정규직여부, 직업만족도의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월평균 임금은 연속변수(단위: 만원)로 측정하였고, 정규직여부는 이분형 변수로 정규직일 경우 1로, 비정규직일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직업만족도는 크게 근무조건(노동환경, 임금), 동료관계(직장 내 대인관계), 복지수준(안정성, 복지후생, 발전가능성)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근무환경·임금·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활용하였다. 각 항목은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구직 시점이 개인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구직을 시작한 시점에서의 노동시장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성과 변수를 조사한 첫 시점인 4차 자료를 사용했다. 4차 자료에 없는 경우에는 이후 시점에서 최초로 보고된 값을 노동시장 성과 변수로 보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게 되는 시점인 4차 연도부터 11차 연도 자료까지 차례대로 병합하였다.

<표 1> 변수들의 문항 내용

변수	내용	척도	비고
진로발달	진로결정 여부	·	예=1, 아니오=0
	진로탐색 수준	업무내용 (하는 일) 전망 및 보수	1: 전혀 모른다 2: 잘 모른다 3: 약간 안다 4: 잘 안다 5: 매우 잘 안다
노동시장 성과	월평균 임금	·	만원단위
	근무형태	·	정규직=1 비정규직=0
	직장만족도_전체	·	1-전혀 그렇지 않다
	직장만족도_노동환경	·	2-그렇지 않다
	직장만족도_임금	·	3-보통이다
직장만족도_안정성	·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게 되는 시점인 4-11차 자료를 병합
- 4차 자료를 일차적으로 사용하였으며, 4차 자료에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병합

<표 2> 변수들의 기초통계

변수	시점	직업결정_비율	진로탐색_평균(표준편차)	결측률(%)
진로발달	2차	0.46	3.36(0.71)	0
	3차	0.47	3.50(0.74)	40.1
	4차	0.49	3.77(0.70)	58.7
	5차	0.45	3.74(0.72)	38.6
	6차	0.45	3.87(0.72)	27.7
	7차	0.48	3.87(0.73)	30.9
	8차	0.48	3.96(0.75)	32.7
	9차	0.42	4.03(0.73)	30.0
	10차	0.37	4.06(0.70)	29.3
	11차	0.32	4.08(0.71)	29.7
변수		평균/비율	표준편차	
노동시장 성과	월평균 임금(만원)	171.35	93.1	
	근무형태(비/정규)	1397/389	·	
	직장만족도_근무조건	3.35	0.81	
	직장만족도_연봉만족	3.14	0.95	
	직장만족도_직장만족	3.33	0.82	
직장만족도_안정성	3.36	0.89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대 전반에 걸쳐 진로발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구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혼합 모형(mixture model)을 적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중점적인 변인인 진로발달은 진로 결정성과 진로탐색 수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진로 결정성 여부와 진로탐색 수준의 변화를 동시에 보기 위해 일반 성장 혼합 모형을 확장하여 이원 성장 혼합 모형(Two-part Growth Mixture Model)으로 분석하였다.

이원 성장 혼합 모형(Two-part Growth Mixture Model)은 이분형 변수를 활용하는 성장모형과 연속형 변수를 활용하는 성장모형의 결합이다(Olsen & Schafer, 2001). 성장 혼합모형은 이질적인 모집단을 가정하여, 한 표본 안에서 여러 개의 변화양상을 찾아낸다(McLachlan & Peel, 2004; Muthen, 2004; Muthen, 2008). 이원 성장 혼합 모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Part 1에서는 각 시점의 진로결정 여부의 변화를 0과 1의 이분형 변수로 추정하여 전반적인 변화 형태를 확인한다(Muthen, 2001; Kim & Muthen, 2009). 이를 통해 혼합 모형에 적용할 최적의 집단 수를 결정한 후에 집단을 하나 추가한다. 이 때 추가되는 집단은 모든 이분형 변수의 값을 0으로 제약하여 모든 시점에서 0만을 응답하는 집단, 즉 진로 결정성이 없는 집단을 도출한다. 이를 구조적인 0(structural zeros) 집단으로 부르며(Muthen, 2001), 구조적 0집단은 우연히 0으로 응답하는 집단이기보다 실질적으로 0의 응답만을 하는 집단을 뜻한다(Carlin, Wolfe, Brown, & Gelman, 2001).

다음으로 도출된 집단 수와 구조적 0집단을 잠재 집단 성장 모형(Latent Class Growth Model)으로 모형화 한다. 잠재 집단 성장 모형은 각 집단 내의 분산을 0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집단 간 평균을 추정한 성장 혼합 모형 중의 하나이다(Muthen, 2008; Sterba, 2013). 각 집단의 분산까지 모두 추정하는 일반적인 성장 혼합 모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집단 내 분산을 추정하는 건 진로 결정성 변화의 형태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잠재집단 내에서의 개인차 탐색이 아닌 집단 간 차이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산 상 부담이 덜한 잠재 집단 성장 혼합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Part 2에서는 Part 1에서 진로 결정을 한 경우(1로 응답한 경우)에 진로탐색 수준을 나타내는 연속형 변수의 변화를 추정한다. 이원 잠재성장 모형은 진로결정 여부의 변화를 확인하는 동시에, 결정을 내렸을 때 본인의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탐색했는지 그 수

준을 나타내는 진로탐색의 변화까지 한 번에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적합하다(Brown, Catalano, Fleming, Haggerty, & Abbott, 2005). 마지막으로 이원 성장 혼합 모형에서 도출된 집단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른 결과변수(distal variables)를 설명하도록 노동시장 성과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다.

집단 수를 선택하기 위해 이원 성장 혼합 모형에서도 일반 혼합 모형과 마찬가지로 베이즈안정보 지수(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BIC)를 기준으로 Lo, Mendel, & Rubin(2001)이 제안한 LMR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LRT), McLachlan & Peel(2000)이 제안한 Bootstrap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를 함께 고려했으며, 해석 가능성에도 중점을 두고 집단 수를 파악했다. BIC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LMR LRT의 경우 k-1개의 집단과 k개의 집단의 우도 값을 비교하여 χ^2 검정을 하여 집단 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Muthen, 2004). BLRT는 LMR LRT 검정과 마찬가지로 k-1개의 집단과 k개의 집단의 차이 검증이다. BIC와 BLRT는 집단 수를 도출하는 데 강한 수행을 보이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마지막으로 entropy는 분류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데(Celeux & Soromenho, 1996), 집단 간 사후확률이 유사하면 분류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합쳐서 계산된 entropy 값의 범위는 0~1 사이로, 값이 높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8 이상이면 집단 분류가 잘 된 것을 뜻한다(Muthen,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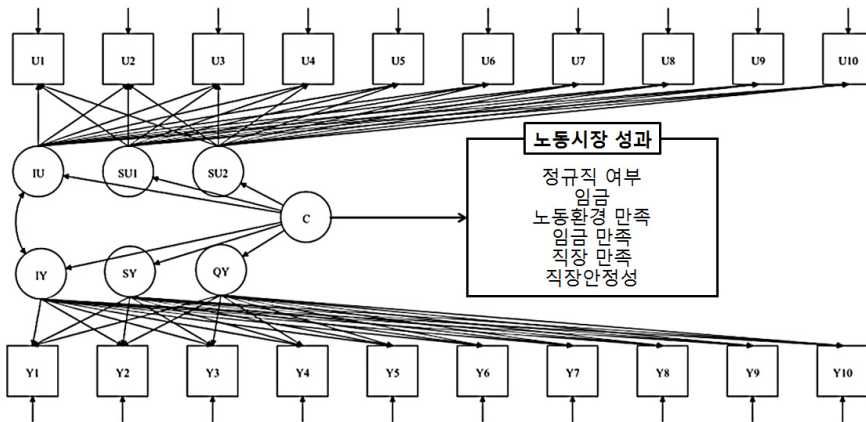
그런데 성장혼합모형에서 집단이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바는 독립변수인 잠재집단 변수가 알려지지 않은 분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를 Lanza가 제시한 모형 기반 분석(Flexible model-based approach; Lanza, Tan, & Bray, 2013)을 통해 검증했다. Lanza 방식은 혼합 모형에 결과변수를 넣는 Vermunt가 제안한 3 단계 접근법(Vermunt, 2010)보다 집단 멤버십 간의 큰 차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Asparouhov & Muthén, 2014). 또한 연속형 결과변수와 범주형 결과변수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있다. Lanza 방식은 결과변수만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 약점이 있지만, 3 단계 접근법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의 모형은 Mplus 7.0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아울러, 20대 전체에 대한 10년 치 종단자료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이탈로 인한 결측값이 다수 발생했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다.

4. 분석모형

진로 결정성과 진로탐색 수준의 청년기 변화 패턴을 확인하기 위한 본 분석에서 사용한 이원 성장 혼합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진로발달 특성의 이원 성장 혼합 모형과 노동시장 성과



- 주1. U1-U10 = 20~29세까지 각 시점에서의 진로결정 여부(이분형 변수)
- 주2. Y1-Y10 = 20~29세까지 각 시점에서의 진로탐색 수준(연속형 변수)

IV. 연구 결과

1. 진로 결정성 변화 형태의 잠재집단 수 결정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전반적인 진로 결정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잠재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2개의 잠재집단에서 분석을 시작하여, 집단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얻어진 BIC를 기본으로, LMR LRT, Bootstrap LRT를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했다. 분석에서 얻어진 집단별 값은 아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BIC 지수가 집단 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4개 집단에서 5개

집단으로 바뀔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LRT는 4개 집단과 5개 집단은 구분 가능하게 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LMR LRT의 경우 4개 집단과 5개 집단이 동일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진로 결정성의 종단적인 변화에는 4개의 상이한 형태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청년기 전반에 걸쳐 진로 미결정 상태에 머무는 집단을 찾기 위해 모든 시점에서 진로 결정성이 0인 집단(구조적 0집단)을 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4개 집단 BIC 지수와 비교했다. BIC 지수가 미세하게 낮아졌으며($\Delta BIC = 1$), LMR LRT와 BLRT의 결과도 4개 집단과 구조적 0집단을 포함한 5개 집단이 구분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잠재 집단 구분의 질(quality)을 평가하는 entropy 지수가 4집단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4개 집단에 구조적 0집단을 포함한 5개 집단 모형을 진로결정성의 종단적인 변화 형태라고 판단했다. 추가적으로 구조적 0집단을 포함한 6개 집단 모형도 분석하였지만, 5개 집단 모형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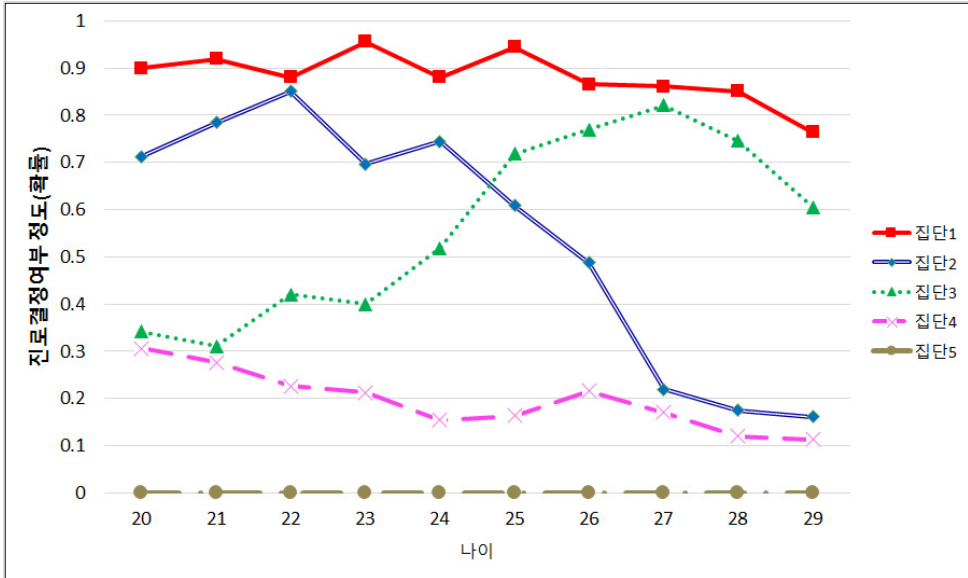
구조적 0을 포함한 5개 집단은 아래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y축은 각 시점에서 진로를 결정했을 확률을 뜻하며, x축은 20세부터 29세까지의 10년의 시간을 나타낸다. 집단 1은 진로를 결정한 확률이 20대 전반에 걸쳐 꾸준히 높은 집단이며, 집단 2는 20대 초반에 진로를 결정했다가 그 이후로 점점 감소하는 집단이다. 집단 3의 경우 진로를 결정한 확률이 초반에는 낮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집단이며, 집단 4는 진로 결정성 수준이 매 순간 낮은 축에 속하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집단 5는 20대 전반에 걸쳐 진로 미결정 상태에 남아있는 집단을 뜻한다.

<표 3> 잠재집단 수 변화에 따른 BIC, Entropy, LMR LRT, BLRT

모형	집단 수	BIC	Entropy	LMR LRT	BLRT
1	2	20872.48	0.623	2068.28***	2092.37***
2	3	20653.49	0.590	301.35***	304.86***
3	4	20533.03	0.565	203.94***	206.32***
4	5	20563.59	0.597	54.67	183.22***
5	5 (0집단)	20532.30	0.584	181.11***	95.96***
6	6 (0집단)	20563.48	0.562	54.05	54.68***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구조적 0 집단을 포함한 5 잠재집단(집단1, 14%, 집단2, 20.5%, 집단3, 22.9% 집단 4, 38.9%, 집단5, 3.7%)



2. 청년기 진로결정 여부 변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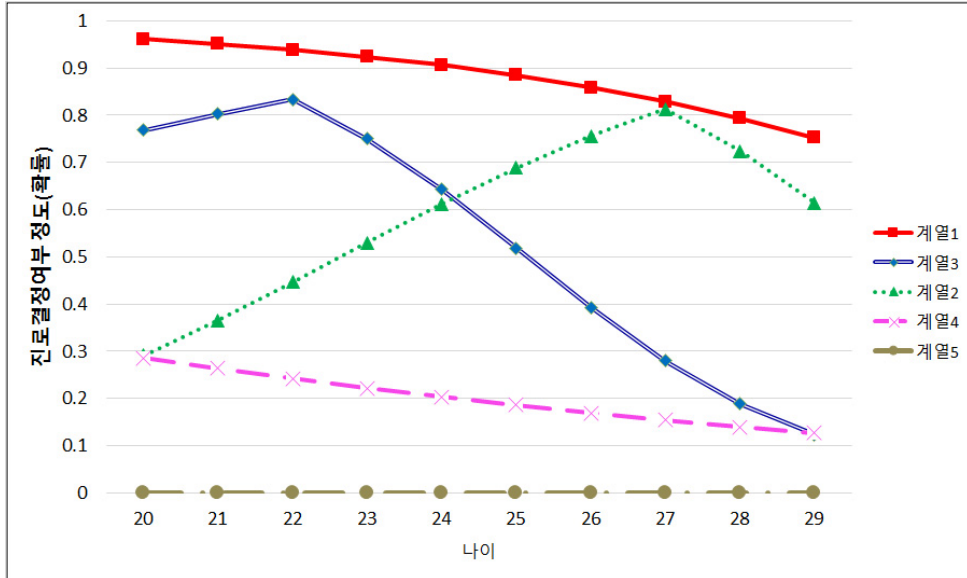
분석을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잠재집단 분석을 통해 도출된 5개 집단을 잠재집단 성장 모형(Latent Class Growth Model)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잠재집단 성장모형은 앞서 분석한 잠재집단분석과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측정된 진로 결정성의 추세를 특정한 함수로 확인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각 집단 내 분산을 살피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장 혼합 모형이 아닌 잠재집단 성장 모형을 활용하여 계산 상 부담을 줄였다. 잠재집단 분석에서 집단 2와 집단 3이 각각 3시점과 8시점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은 따로 분할함수 모형(Piecewise model)으로 적합시켰고, 나머지 집단에 대해서는 선형함수를 적용했다.

잠재집단분석과 동일하게 구조적 0 집단을 포함하여 5개 집단 모형을 분석한 결과, BIC는 10568.04로 나타났다. 반면, 6개 집단 모형의 경우 BIC가 10581.21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5개 집단 모형을 진로 결정성 변화의 최종 모형으로 선택했다.

진로 결정성의 각 집단의 종단 추세 변화는 아래 [그림 3]와 같다. 집단 분류 비율은 집단 1, 13.5%, 집단 2, 18.4%, 집단 3, 25%, 집단 4, 39%, 구조적 0 집단인 집단

5이 3.7%로 나타났다.

[그림 3] 진로결정 잠재집단 성장모형(집단1, 13.5%, 집단2, 18.4%, 집단3, 25% 집단 4, 39%, 집단5, 3.7%)



3. 진로 결정성과 진로탐색 수준 변화 형태

20대 전반의 진로발달의 변화 형태를 탐색하기 위해 앞서 분석한 진로 결정성 집단을 진로탐색 수준의 변화와 결합하여, 이원 성장 혼합 모형을 최종적으로 분석했다. 진로탐색 변화의 경우 한 개 집단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초기에 증가하다 그 속도가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초기치 = 3.332, 선형 기울기 = 0.141, 2차 함수 기울기 = -0.007), 2차 함수에서 적합도가 향상되었다($df=46$, $\chi^2=99.85^{***}$, CFI = 0.95, TLI = 0.95, RMSEA = 0.024). 즉, 진로 결정성 여부는 분할함수 모형으로, 진로탐색 수준은 2차 함수로 적합하여 이원 혼합 성장 모형에 적용했다. 최종적인 진로 결정성과 진로탐색 수준을 혼합한 진로발달 변화 형태와 변화 함수는 아래 [그림 4]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진로 결정성과 진로탐색 수준 청년기 변화 형태의 성장함수 평균과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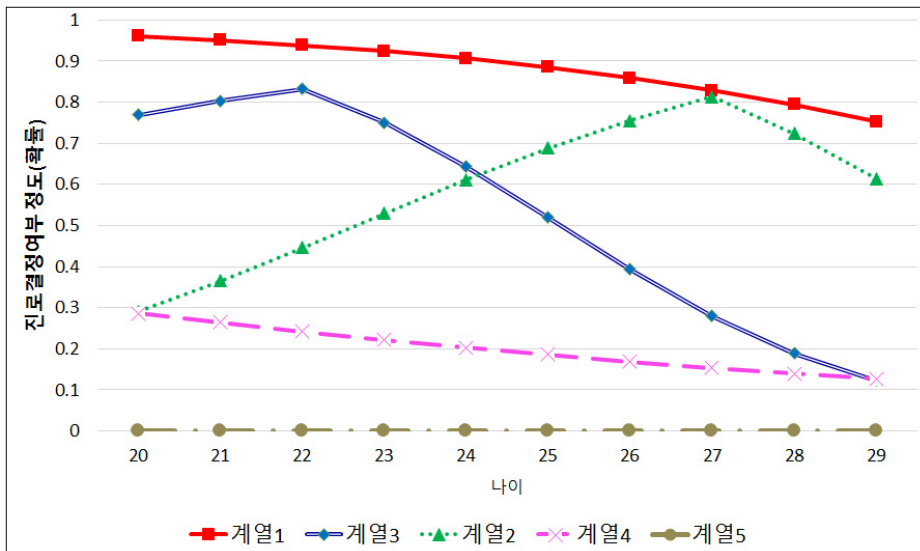
성장 함수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평균	표준 오차	평균	표준 오차	평균	표준 오차	평균	표준 오차	평균
IU	3.37	0.56	1.38*	0.65	-0.71***	0.46	-0.73	0.64	·
SU1	-0.23*	0.09	0.20	0.17	0.33***	0.03	-0.11***	0.03	·
SU2	·	·	-0.51***	0.06	-0.50***	0.08	·	·	·
IY	3.52***	0.06	3.44***	0.07	3.20***	0.06	3.17***	0.05	·
SY	0.20***	0.03	0.19***	0.03	0.13***	0.02	0.11**	0.03	·
QY	-0.01***	0.00	-0.02***	0.00	-0.00	0.00	-0.00	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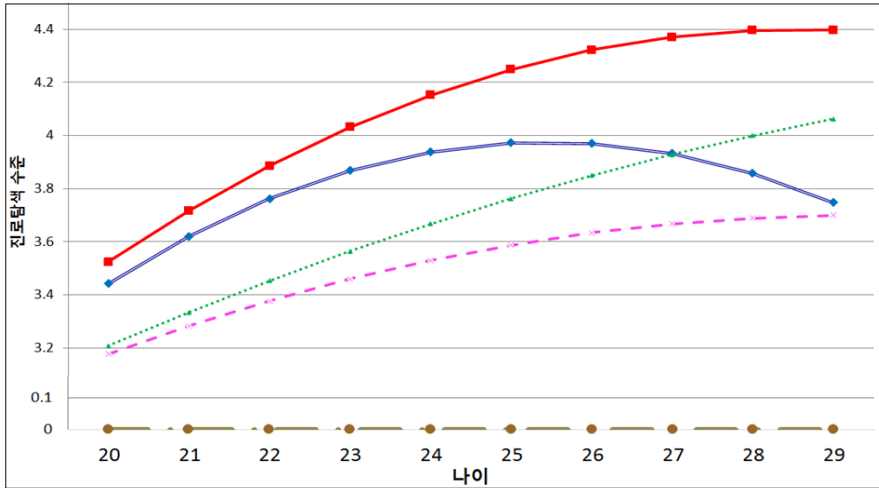
주1. IU = 진로결정 변화의 초기치; SU1 = 진로결정 변화의 기울기; SU2 = 진로결정 변화의 분할 함수; IY = 진로탐색 수준 변화의 초기치; SY = 진로탐색 수준 변화의 선형 기울기; QY = 진로탐색 수준 변화의 2차 기울기;

주2. 집단5의 경우 매 시점 진로결정성과 진로탐색 수준을 0으로 제약했기 때문에 추정되지 않는다.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진로 결정성과 진로탐색 수준의 변화 패턴





4. 진로발달의 집단 특성

이원 성장 혼합 모형으로 도출된 5개의 진로발달의 잠재집단은 진로 결정성과 진로탐색 수준을 합쳐 해석 된다. 먼저, 집단 1은 전반적으로 진로 결정성이 높으면서 진로탐색 수준이 증가하는 집단, 집단 2는 처음에는 진로 결정성이 높았지만 진로탐색 수준이 증가하면서 미결정으로 응답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 3의 경우 초기에 진로 결정 여부와 진로탐색 수준 모두 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집단 4는 전반적으로 진로결정성도 감소하고 진로탐색 수준도 낮은 집단이었다. 마지막으로 집단 5는 진로 미결정 집단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1의 경우 전체 13.5%의 비율을 차지하며,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인 사고를 거쳐 확실히 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진로성숙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 2는 18.4%로, 초반에 진로를 깊게 탐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를 결정했다고 응답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되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이 줄어들어 ‘진로혼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 3은 전체 25%의 비율을 차지하며, 처음에는 진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탐색을 꾸준히 하면서 점점 진로가 확고해지는 ‘진로 강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집단 4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39%로, 진로에 대해 뚜렷한 방향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탐색도 하지 않는 ‘진로약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를 20대 전반에 걸쳐 결정하지 못하는 ‘진로 미결정 집단’은 3.7%로 나타났다는데, 이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진로발달 잠재집단과 노동시장 성과

진로 결정성과 진로탐색 수준 변화에 따른 5개의 집단이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이원 성장 혼합 모형에 노동시장 성과 변수인 정규직 여부, 임금, 전반적 만족도, 노동환경 만족도, 임금 만족도, 안정성 만족도의 변수를 넣어 확인해 보았다. 잠재집단이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Lanza가 제시한 모형에 기반한 접근법(Flexible model-based approach)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Lanza et al, 2013).

진로 결정성과 진로탐색 수준의 변화 궤도에 따른 집단이 노동시장 성과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시장 성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평가되는 정규직 여부와 임금을 분석해 본 결과, 정규직의 여부의 경우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chi^2 = 6.85, p > 0.05$), 임금 경우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hi^2 = 4.34, p > 0.05$).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 여부는 진로성숙 집단과 진로강화 집단에서 가장 많은 정규직 비율이 나타났으며, 진로 미결정 집단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임금의 경우 진로성숙 집단이 평균 185만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진로 미결정 집단은 163만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성과의 한 부분인 직장 만족에 대한 정도는 직장 전반 만족, 노동환경과 임금 만족, 그리고 직장안정성으로 평가되는데, 모든 부분에서 집단 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chi^2 = 47.72, 66.56, 22.81, 36.02, p < .001$). 모든 직장 만족도 영역에서 '진로성숙 집단'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이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이어오는 집단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도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진로 미결정 집단'은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즉 진로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지 않은 취업 활동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진로 미결정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들의 경우 임금, 직업 만족도 요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진로약화 집단'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진로 미결정 집단'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적은 집단일수록 낮은 노동시장 성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진로가 점점 확고해지는 '진로강화 집단'의 경우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 노동환경·임금·안정성 만족도에 대해서 '진로혼란 집단'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초반에 진로를

결정했다고 응답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이 줄어들어 ‘진로혼란 집단’은 임금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직업 만족도는 ‘진로성숙 집단’과 ‘진로강화 집단’에 비해 높지 않았다.

<표 5> 잠재 변화 형태에 따른 노동시장성과 차이 분석

	전체 χ^2	진로성숙 집단	진로혼란 집단	진로강화 집단	진로약화 집단	진로 미결정 집단
정규직 여부	6.85	0.24	0.16	0.26	0.21	0.15
임금	4.34	185.46	173.66	169.55	166.87	163.87
직장만족도_전체	42.72***	3.54	3.26	3.45	3.23	3.21
직장만족도_노동환경	66.56***	3.64	3.28	3.44	3.22	3.19
직장만족도_임금	22.81***	3.26	3.08	3.21	3.12	2.69
직장만족도_안정성	36.02***	3.58	3.25	3.49	3.27	3.14

주. Lanza 방식으로 각 잠재 변화 형태 간 노동성과의 차이 검증을 한 것으로 각 노동시장성과 값들은 잠재 패턴의 평균을 뜻한다.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대 청년들의 진로 결정성과 진로탐색 수준 변화 형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진로발달과 구직 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진로결정이나 태도 등은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애단계에 따라 발달하고 변화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인 20대 전반에 걸쳐 진로를 결정하고 탐색하는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진로 발달 형태가 결과적으로 구직 성과와 어떤 관련성을 맺는 지를 파악하여, 향후 대학생들의 진로발달 정책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년간 진로결정과 진로탐색 수준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확인한 결과, 다섯

가지 변화양상을 보이는 잠재집단이 확인되었다. 다섯 개의 진로발달 잠재집단은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탐색활동을 하는 '진로성숙 집단', 초반에 진로를 깊게 탐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를 결정했다고 응답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이 줄어드는 '진로혼란 집단', 처음에는 진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탐색을 꾸준히 하면서 점점 진로가 확고해지는 '진로강화 집단', 진로에 대해 뚜렷한 방향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탐색도 하지 않는 '진로약화 집단', 그리고 진로를 20대 전반에 걸쳐 결정하지 못하는 '진로 미결정 집단'이다. 집단 분류 비율은 각각 13.5%, 18.4%, 25%, 39%, 그리고 3.7%로 나타났다.

둘째, 각 진로발달 잠재집단이 구직 성과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이원 성장 혼합 모형에 구직 성과 변수인 정규직 여부, 임금, 직업 만족도(전반적 만족도, 노동환경 만족도, 임금 만족도, 안정성 만족도) 변수를 넣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임금과 직업 만족도에서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드러지는 결과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고한 결정을 하고 적극적인 탐색을 한 '진로성숙 집단'이 진로에 대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은 '진로미결정 집단'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높은 구직 성과를 보였다. 즉, 청년기 동안 자신의 미래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탐색활동을 해왔던 집단이 임금과 직장 만족도에서 높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대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학교 1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은 진로 미결정 상태를 예방하며, 진로발달 수준을 높이고, 적절한 직업을 찾게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초반에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꾸준한 탐색을 하면서 점점 진로가 확고해져 가는 '진로강화 집단'이 진로를 깊게 탐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를 결정했다고 응답한 '진로혼란 집단'에 비해 직장 만족도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즉, 진로를 꾸준히 고민하고 발달시키는 집단이 자신의 직업에 있어 더 적극적이며 더 높은 만족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지속적인 진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할 수 있다. 현재 대학교에서 진로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스스로 삶의 진로를 결정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길러주기보다는 대부분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고학년 대상으로 단순 취업정보나 이벤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진로를 꾸준히 발달시키는 '진로강화 집단'이 특정 시점에서만 진로발달이 높은 집단보다 만족도 측면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여 저학년에는 자기이해, 직업세계 이해, 진로의사 결정 등의 진로 준비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고학년에는 취업에 필요한 스킬을 개발하

여 종합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대학에서 사회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않고 진로 결정성이 점점 낮아지는 '진로약화 집단'은 '진로 미결정 집단'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구직 성과를 보였는데, 진로 고민을 청년기에 치열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진로약화 집단'과 '진로 미결정 집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데, 그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진로발달 저수준에 속하는 학생들은 초기에 낮은 발달상태를 보였고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진로미결정성이 시간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Dysinger(195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및 상담현장에서 자기이해 활동과 직업정보 탐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진로발달 형태와 구직 성과와의 관계를 탐색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진로발달 잠재집단이 어떠한 원인으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확장시키지 못했다. 즉, 잠재집단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시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또, 본 연구는 전반적인 청년층 진로발달 변화를 탐구했지만, 한국 사회의 특성상 남학생과 여학생의 진로발달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 남자의 경우 20대 초중반에 군 입대 문제로 진로발달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남학생만이 가지는 진로발달 변화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취업난에 허덕이면서 꿈을 잃고 헤매는 청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진로의식은 매 순간 바뀔 수 있지만, 진로의식이 낮은 청년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자포자기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는 있는 현실이다. '고용절벽'이라고까지 불리는 현 상황에서 단지 이상만을 꿈꾸는 것은 어쩌면 낭비적인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업(業)으로 삼을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꿈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직장'을 갖는 것으로 가치를 잃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이 진로를 고민하고, 진로를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현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 곽수란·이기중(2014). 「가정배경과 청년기 진로발달 특성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제17권 제3호, 203~227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권재기·김진호(2011). 「청년기 직업결정의 변화양상에 따른 진로특성 변화 및 예측: 대학 4년간의 진로고민·고등학교 3학년 때의 진로특성」,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제14권 제1호, 49~74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봉환·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9권 제1호, 311~333쪽, 한국심리학회.
- 김성남(2013). 「특성화고졸 취업자의 진로발달 유형과 직장만족도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제32권 제3호, 141~162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김충기(1996). 「진로교육에서의 진로정보활동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연구소 논문집』, 제20권, 133~167쪽, 건국대학교.
- 김충기·김현옥(1993).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건국대학교 출판부.
- 노경란, 박용호, 허선주(2011).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 참여 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취업여부, 고용형태, 일자리 만족도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49권 제1호, 63~92쪽, 한국교육학회.
- 노법래(2013). 「후기청소년의 진로발달 궤적에 관한 중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 171~193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동열·김대영(2006). 「대학생의 직업의식에 관한 실태」, 『직업교육연구』, 제25권 제2호, 1~32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박소영·민병철(2008). 「진로결정시기가 임금과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제9권 제4호, 245~270쪽,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박수길·이영희(2002).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제1호, 141~160쪽, 한국심리학회.

- 박재민·엄미정·김윤영(2010). 「전공-직업 일치의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제13권 제2호, 1~20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희경·김우영(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직업능력개발연구』 제8권 제2호, 47~83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자형(2015).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변화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분석: 진로 계획성과 진로관심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10호, 289~316쪽, 한국청소년학회.
- 임은미·박승민·엄영숙(2009).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과 전공 만족도, 전공 및 직 장선택 기준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0호, 33~50쪽, 한국청소년학회.
- 장경문(200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6권 제1호, 185~196쪽, 한국상담학회.
- 정윤경(2000).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유형 이해를 위한 탐색적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44~168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제 28권 제2호, 89~107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황매향·김봉환·최인재·허은영(2010). 「한국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진로발달 특성의 변화추이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제11권 제4호, 75~94쪽, (발행기관).
- 황여정(2007).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인지수준 영향요인」, 『교육사 회학연구』, 제17권 제1호, 131~158쪽,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Arbuckle, J. L.(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NY: Psychology Press, pp. 243~277.
- Asparouhov, T., & Muthén, B.(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21 No.3, pp.329~341.
- Brown, E. C., Catalano, R. F., Fleming, C. B., Haggerty, K. P., & Abbott, R. D. (2005). "Adolescent substance use outcomes in the Raising Healthy Children project: a two-part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73 No.4, pp.699.

- Carlin, J. B., Wolfe, R., Brown, C. H., & Gelman, A.(2001). "A case study on the choice, interpretation and checking of multilevel models for longitudinal binary outcomes", *Biostatistics*, Vol.2 No.4, pp.397~416.
- Celeux, G., & Soromenho, G.(1996). "An entropy criterion for assessing the number of clusters in a mixture model", *Journal of classification*, Vol.13 No.2, pp.195~212.
- Dysinger, W. S.(1950). "Maturation and vocational guidance", *Occupations*, Vol.29, pp.198~201.
- Ginzberg, E., Ginzberg, S. W., Axelrad, S. & Herma, J. L.(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Kim, Y., & Muthén, B. O.(2009). "Two-part factor mixture modeling: Application to an aggressive behavior measurement instru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16 No.4, pp.602~624.
- Lanza, S. T., Tan, X., & Bray, B. C.(2013). "Latent class analysis with distal outcomes: A flexible model-based approac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20 No.1, pp.1~26.
- Lee, T. W., Locke, E. A., & Latham, G. P.(1989). "Goal setting theory and job performance", In L. A. Pervin (Eds.), *Goal concepts 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NJ: Lawrence Erlbaum, pp. 291 - 328.
- Lo, Y., Mendell, N. R., & Rubin, D. B.(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Vol.88 No.3, pp.767~778.
- McLachlan, G., & Peel, D.(2004). *Finite mixture models*, NY: John Wiley & Sons, Inc.
- Muthén, B.(2001). "Two-part growth mixture modeling", Unpublished manuscript.
- Muthén, B.(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In D. Kapla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CA: Sage Publications, pp. 345~368.
- Muthén, B.(2008). "Latent variable hybrids: Overview of old and new models", *Advances in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s*, Vol.1, pp.1~24.
- Newman, D. A.(2003). "Longitudinal Modeling With Randomly and Systematically

- Missing Data: A Simulation of Ad Hoc, Maximum Likelihood, and Multiple Imputation Technique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Vol.6 No.3, pp. 328~362.
- Norris, W., Hatch, R. N., Engelkes, J. R., & Winborn, B. B.(1985). *The career information service*, IL: Waveland Press Inc.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14 No.4, pp.535~569.
- Olsen, M. K., & Schafer, J. L.(2001). “A two-part random-effects model for semicontinuous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96 No.454, pp.730~745.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9 No.2, pp.233~243.
- Sterba, S. K. (2013). “Understanding linkages among mixture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48 No.6, pp.775~815.
-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Y: Harper & Row.
- _____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Brown S. D, Brooks, L.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CA: Jossey-Bass publishers.
- Usinger, J. & Smith, M.(2010). “Career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self- construct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76, pp.580~591.
- Vermunt, J. K.(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Vol.18 No.4, pp.450~469.

Abstract

Effects of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on Labor Market Outcomes: Applying the Two-part Growth Mixture Model

Sooyong Lee

Eunsoo Lee

Sehee Hong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the career development in adolescent. Since the career path is not fixed, rather changing over tim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career development in adolescence. Thus, using the 11th wave data of the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this study attempts to categorize the change of youth career development over time and verifies how those categories have effects on labor market outcomes, including income and job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pplied the two-part growth mixture model and conducted the Lanza approach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can be categorized into five different patterns, including the career indecision group. Moreover, the group with a high level of career development has greater achievement of the labor market outcomes. Detailed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in the paper.

Key words : career development, labor market outcomes, latent group, two-part growth model.